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8년 4/4분기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미국(2.6%)과 중국(1.5%)은 하락하고 일본(1.9%)과 유로지역(0.9%)은 상승함
 - 미국은 민간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중국은 수출 증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일본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주택투자 증가와 수출 증가율 상승으로, 유로지역은 민간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율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2018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하락한 99.4를 기록함
 -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다소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1%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중국과 미국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본과 유로지역의 국채금리는 하락함
 - 국제유가(두바이 61.9달러/배럴, WTI 53.9달러/배럴)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87.5)은 동반 하락함

■ 2018년 4/4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 증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2.6% (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1.5%)은 수출 증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함 (〈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주택투자, 수출 등 주요지표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1.9%(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0.9%, 연율)은 민간소비, 수출 증가율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n.a.		n.a.		3.8	n.a.		n.a.		3.6
선진국 ¹⁾	2.5		2.7		2.4	2.2		2.0		2.2
신흥국 ¹⁾	5.4		5.2		4.8	5.2		4.3		4.6
미국 ²⁾	1.8	3.0	2.8	2.3	2.2	2.2	4.2	3.4	2.6	2.9
중국 ³⁾	1.5	1.8	1.7	1.6	6.9	1.5	1.7	1.6	1.5	6.6
일본 ⁴⁾	3.6	1.8	2.5	1.6	1.9	0.4	1.9	-2.4	1.9	0.8
유로지역 ⁵⁾	2.7	2.7	2.7	2.8	2.4	1.4	1.7	0.6	0.9	1.8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국내총생산 지표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화한 것임. 단,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 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2019. 4),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9. 2)

3) 중국 국가통계국(2019. 1)

4) 일본 내각부(2019. 3)

5) Eurostat(2019. 3)

■ 2018년 4/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¹⁾(99.4)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0.3 하락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6, 0.4 하락한 99.5를 기록함
- 일본은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9를 나타냄
- 중국은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8.4를 기록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100.1	100.3	100.4	100.4	100.3	100.3	100.0	99.7	99.4	99.8
선진국 ³⁾	100.1	100.3	100.4	100.5	100.3	100.5	100.2	99.8	99.4	100.0
미국	99.7	99.8	99.9	100.1	99.9	100.4	100.4	100.1	99.5	100.1
유로지역	100.3	100.5	100.8	100.9	100.6	100.8	100.3	99.9	99.5	100.1
일본	100.1	100.2	100.3	100.3	100.2	100.1	100.1	100.0	99.9	100.0
중국	100.7	100.8	100.7	100.1	100.6	99.4	99.0	98.7	98.4	98.9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8년 4/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2.3%p 낮아진 1.4%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2%p 하락한 0.6%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2.6%로 전분기보다 3.7%p 낮아짐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¹⁾²⁾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4.2	4.4	5.2	4.9	4.7	4.2	3.8	3.7	1.4	3.3
선진국	2.6	3.6	4.3	5.1	3.9	4.0	3.1	1.8	0.6	2.4
신흥국	6.7	5.5	6.7	4.6	5.9	4.6	4.8	6.3	2.6	4.6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8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와 국제유가는 상승한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1%로 전분기 대비 0.9%p 상승함
- 두바이 현물 가격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 가격은 전분기보다 각각 14.1, 16.7달러 하락한 배럴당 61.9, 53.9달러이고, CRB 상품지수²⁾는 5.2 하락한 187.5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2018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3.6	3.6	4.6	5.1	5.1	두바이 현물 가격 ²⁾	65.0	73.5	76.0	61.9	69.1
선진국	1.7	2.0	2.1	1.9	1.7	WTI 현물 가격 ²⁾	63.8	69.9	70.6	53.9	64.5
신흥국	4.8	4.6	6.2	7.1	7.15	CRB 상품지수 ³⁾	195.0	200.1	192.7	187.5	193.8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단위: 달러/배럴

3)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8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증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8%p 낮아진 2.6%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2.8%)과 민간투자 증가율(4.6%)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수출 증가율(1.6%)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2.7%)과 정부지출 증가율(0.4%)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8년 4/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0.2%)은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133.6)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0.9%)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6.9)는 하락하고, 설비가동률(79.4%)과 경기선행지수(111.4)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3.8%)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 수(70만 명)는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2%)과 생산자물가 상승률(2.2%)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8년 12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2.84%, 10년물 3.04%)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증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8%p 낮은 2.6%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2.8%)은 전분기보다 0.7%p 하락함
 - 민간투자 증가율(4.6%)은 주택투자 부문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전분기 대비 10.6%p 낮아짐³⁾
 - 수출 증가율(1.6%)은 전분기보다 6.5%p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2.7%)은 6.6%p 하락함
 -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순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지속함⁴⁾
 - 정부지출 증가율(0.4%)은 전분기보다 2.2%p 낮아짐

3) 남경옥(2019. 3. 1), “미국 '18년 4/4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4) 남경옥(2019. 3. 1), “미국 '18년 4/4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1.8	3.0	2.8	2.3	2.2	2.2	4.2	3.4	2.6	2.9
민간소비	1.8	2.9	2.2	3.9	2.5	0.5	3.8	3.5	2.8	2.6
재화	1.9	5.6	4.1	6.8	3.7	-0.6	5.5	4.3	3.9	3.8
서비스	1.7	1.7	1.4	2.6	2.0	1.0	3.0	3.2	2.4	2.1
민간투자	4.9	5.7	8.8	0.8	4.8	9.6	-0.5	15.2	4.6	6.0
설비	9.6	7.3	3.4	4.8	5.3	11.5	8.7	2.5	6.2	7.0
주택	11.1	-5.5	-0.5	11.1	3.3	-3.4	-1.3	-3.6	-3.5	-0.2
수출	5.0	3.6	3.5	6.6	3.0	3.6	9.3	-4.9	1.6	3.9
수입	4.8	2.5	2.8	11.8	4.6	3.0	-0.6	9.3	2.7	4.6
정부지출	-0.8	0.0	-1.0	2.4	-0.1	1.5	2.5	2.6	0.4	1.5

주: 전분기 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9. 2); BEA

〈소비부문〉

■ 2018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0.2%)은 전분기 대비 0.9%p 낮아졌고 소비자신뢰지수(133.6)는 전분기보다 1.0 높아짐

■ 2018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6%p 낮아진 -6.7%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5 하락한 213.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5	0.6	1.1	2.4	4.7	0.4	1.7	1.1	0.2	4.9	0.2	n.a.
소비자신뢰지수 ²⁾	117.5	118.1	120.3	126.0	120.5	127.1	127.2	132.6	133.6	130.1	121.7	131.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1.7	-4.9	0.1	7.5	2.6	4.6	-4.3	-2.1	-6.7	2.7	18.6	n.a.
주택가격지수 ⁴⁾	193.9	198.9	202.6	204.1	199.9	206.7	211.8	213.8	213.3	211.4	212.4	n.a.

주: 1) 계절조정,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년 1월=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8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⁵⁾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0.9%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79.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 대비 2.7 하락한 56.9를 기록함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5 높아진 111.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0.6	1.4	-0.2	1.8	2.3	0.6	1.1	1.3	0.9	3.9	-0.1	0.0
설비가동률 ²⁾ (%)	75.5	76.5	76.3	77.6	76.5	77.9	78.5	79.1	79.4	78.7	79.2	79.1
ISM제조업PMI	56.7	55.9	58.5	58.5	57.4	59.9	58.9	59.6	56.9	58.8	56.6	54.2
경기선행지수 ³⁾	102.1	103.2	104.3	106.3	104.0	108.1	109.3	110.9	111.4	109.9	111.3	111.5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2007년=100

3) 2016년=100

자료: Bloomberg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8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함

- 실업률은 3.8%를 기록하였고, 포괄적 실업은 0.1%p 상승한 7.6%를 기록함
- 비농업취업자는 70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3만 2,000명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8,000명 감소함

■ 2018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분기 대비 0.4%p 낮아졌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1%p 낮은 2.2%임
- 생산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 대비 1.5%p, 0.1%p 낮은 2.2%, 2.5%를 기록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¹⁾	4.6	4.4	4.3	4.1	4.4	4.1	3.9	3.8	3.8	3.9	4.0	3.8
포괄적 실업률(u-6) ²⁾	9.0	8.5	8.5	8.0	8.5	8.1	7.8	7.5	7.6	7.7	8.1	7.3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52.0	57.0	40.9	65.4	215.3	68.3	72.8	56.8	70.0	267.9	31.1	2.0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4.4	24.1	24.9	24.1	24.3	22.6	22.1	21.4	22.2	22.1	22.3	22.5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2.5	1.9	1.9	2.1	2.1	2.2	2.7	2.6	2.2	2.5	1.6	1.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2.2	1.8	1.7	1.8	1.9	1.9	2.2	2.3	2.2	2.1	2.2	2.1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3.5	3.0	2.8	3.4	3.2	2.9	3.5	3.7	2.2	3.1	0.3	0.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7	1.9	1.8	2.0	1.8	1.9	2.0	2.6	2.5	2.3	2.8	2.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3) 전분기 대비 증감,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임

5) 1982~1984년=100, 전년 동기(월) 대비임

6) 1982년=100, 전년 동기(월) 대비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8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2.84%, 10년물 3.04%)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0bp, 국채 10년물 금리는 12bp 상승함
 - FOMC는 2018년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2019년 3월 정책금리를 동결함
 - FOMC 위원 10명은 3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고, 연준은 9월 말 보유자산 규모(B/S) 축소 종결을 결정함⁶⁾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1.51	1.46	1.50	1.81	1.57	2.30	2.61	2.74	2.84	2.62	2.53	2.48
국채 10년물	2.44	2.26	2.24	2.37	2.33	2.75	2.92	2.92	3.04	2.91	2.71	2.67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6) 김성택·남경옥(2019. 3. 21), “[3월 FOMC] ‘19년 금리동결, B/S 축소 9월 말 종료”, 국제금융센터

나. 중국경제

- 2018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5%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8.3%)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21.4)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5.7%)과 구매자관리지수(49.9)는 모두 전분기에 비해 낮아짐
 -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2%)과 생산자물가 상승률(2.3%)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8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3.77%, 10년물 3.96%)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6.916위안/달러)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4/4분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1.5%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0.4%p 상승한 5.8%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7.1%p 하락한 4.6%를 나타내고, 수입 증가율은 5.2%로 전분기 대비 15.5%p 하락함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치인 972억 달러로 확대됨⁷⁾

7) 이상원·이치훈(2019. 1. 21), “18. 4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¹⁾	1.5 (6.8)	1.8 (6.8)	1.7 (6.7)	1.6 (6.7)	6.9	1.5 (6.8)	1.7 (6.7)	1.6 (6.5)	1.5 (6.4)	6.6
고정자산투자 ²⁾	9.1	8.7	7.9	7.2	8.1	7.7	6.4	5.4	5.8	6.2
수출 증가율 ³⁾	7.4	9.0	6.4	9.6	8.1	17.1	11.5	11.7	4.6	11.2
수입 증가율 ³⁾	25.1	14.5	14.4	13.1	16.8	19.7	20.7	20.7	5.2	16.6

주: 1) 전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도시지역 기준임

3)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9. 1); Bloomberg

〈소비부문〉

■ 2018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8.3%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함

- 자동차 및 사무용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함⁸⁾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5 상승한 121.4를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9	10.8	10.3	9.9	10.4	9.9	9.0	9.0	8.3	8.9	n.a.	n.a.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14.8	116.0	122.6	116.3	122.9	121.3	118.9	121.4	121.1	n.a.	n.a.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임

2) 1997년=100.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의 경제 추세에 대한 기대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작을수록 비관주의, 클수록 극단적 낙관주의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8) 이상원·이치훈(2019. 1. 21), “18. 4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생산부문〉

- 2018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낮아진 5.7%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1.2 낮은 4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7.6	6.9	6.3	6.2	6.6	6.0	6.6	6.0	5.7	6.1	n.a.	n.a.
제조업PMI ²⁾	51.6	51.4	51.8	51.7	51.6	51.0	51.6	51.1	49.9	50.9	49.5	49.2

주: 1)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년 동월 대비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⁹⁾ 및 물가〉

- 2018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2.2%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8%p 하락한 2.3%를 기록함

9)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 포함하지 않음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1.4	1.6	1.8	1.6	2.2	1.8	2.3	2.2	2.1	1.7	1.5
생산자물가 상승률	7.4	5.8	6.2	5.9	6.3	3.7	4.1	4.1	2.3	3.5	0.1	0.1

주: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 통계는 전년 동월 대비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국채금리 및 환율〉

■ 2018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3.77%, 10년물 3.96%)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3년물), 혹은 하락(10년물)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3bp 상승하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4bp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함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1.63% 상승한 6.916위안/달러를 기록함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4.16	4.16	3.76	3.95	4.01	4.15	3.91	3.64	3.77	3.87	3.41	3.41
국채 10년물	4.25	4.50	4.06	4.08	4.22	4.33	4.18	4.00	3.96	4.12	3.63	3.48
위안/달러	6.889	6.862	6.671	6.613	6.758	6.359	6.379	6.805	6.916	6.617	6.791	6.740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8년 4/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주택투자, 수출 등 주요지표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1.9%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2.0%)은 전분기에 비해 높아짐
 - 소매판매 증가율(1.2%)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소비자신뢰지수(42.9)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0.6%)은 전분기에 비해 높아졌지만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3.2%)은 전분기 대비에 비해 낮아짐
 - 실업률(2.4%)과 유효구인배율(1.63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8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2%, 10년물 0.10%)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유지 결정에 따라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경제성장〉

- 2018년 4/4분기 일본의 계절조정 경제성장률(연율)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주택투자, 수출 등 주요지표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1.9%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0.4%를 기록함
 - 자연재해 여파 해소 및 신선식품 가격 안정,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¹⁰⁾
- 설비투자 증가율은 2.7%로, 전분기 대비 5.3%p 상승함
 - 2020년 올림픽 개최, 외국인 관광객 대비 투자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¹¹⁾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1.1%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1.7%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상승한 1.0%를 기록함

10) 손영환·박진혁(2019. 2. 14), “일본 ’18. 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 국제금융센터

11) 손영환·박진혁(2019. 2. 14), “일본 ’18. 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 국제금융센터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4%p 상승한 2.7%를 기록함
 - 자연재해로 폐쇄되었던 일부 공항의 운항이 재개되었고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함¹²⁾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0.7%를 기록함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9 (3.6)	0.4 (1.8)	0.6 (2.5)	0.4 (1.6)	1.9	-0.1 (0.4)	0.5 (1.9)	-0.6 (-2.4)	0.5 (1.9)	0.8
민간소비	0.6	1.0	-0.8	0.5	1.1	-0.2	0.6	-0.2	0.4	0.4
설비투자	1.5	0.9	1.7	0.7	3.9	1.0	2.5	-2.6	2.7	3.9
주택투자	0.5	1.8	-1.9	-3.2	2.1	-2.0	-2.0	0.6	1.1	-5.7
공공투자	0.5	3.1	-2.5	-0.1	0.7	-0.7	-0.7	-2.3	-1.7	-3.2
수출	1.7	-0.1	2.5	2.2	6.8	0.4	0.4	-1.4	1.0	3.1
수입	1.3	1.9	-0.6	2.3	3.4	0.0	1.3	-0.7	2.7	3.3
정부지출	0.3	-0.1	0.3	0.0	0.3	0.2	0.1	0.2	0.7	0.8

주: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임
 자료: 일본 내각부(2019.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2%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2.9로 전분기보다 0.5 하락함

■ 2018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상승하고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하락함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2.0%로, 전분기보다 3.5%p 상승함

12) 손영환·박진혁(2019. 2. 14), “일본 '18. 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 국제금융센터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8%p 상승한 0.6%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7%p 하락한 -3.2%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0.2	1.8	0.4	1.6	4.5	-1.3	1.3	-1.5	2.0	1.2	-3.5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0.2	0.6	0.1	1.3	1.9	-0.6	0.4	1.1	1.2	1.7	-2.3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3.4	43.4	43.8	44.5	43.8	44.4	43.7	43.4	42.9	43.6	41.9	41.5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3.2	1.1	-2.4	-2.5	-0.3	-8.2	-2.0	-0.2	0.6	-2.3	1.1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1.8	-4.0	3.3	1.2	-1.1	2.3	1.6	1.5	-3.2	3.6	-23.1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임
 3) 계절조정, 2005년=100,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4) 전년 동기(월) 대비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 대비,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8년 4/4분기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¹³⁾은 전분기와 동일한 2.4%, 1.63배를 각각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수준과 동일한 0.1%를 나타냄

13) 유효구인배율=구인 수/구직자 수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2.9	2.9	2.8	2.7	2.8	2.5	2.4	2.4	2.4	2.4	2.5	2.3
유효구인배율 ¹⁾	1.45	1.49	1.52	1.56	1.50	1.59	1.61	1.63	1.63	1.61	1.63	1.63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3	0.4	0.6	0.6	0.5	1.3	0.7	1.1	0.8	1.0	0.2	0.2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1	-0.2	0.0	0.1	-0.1	0.2	0.1	0.1	0.1	0.1	0.3	0.3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2015년=100,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년 동월 대비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국채금리〉

■ 2018년 4/4분기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분기보다 1bp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한 -0.12%를 기록함

○ 일본은행(BOJ)은 2019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정책¹⁴⁾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경제와 물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장단기 금리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¹⁵⁾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18	-0.15	-0.11	-0.13	-0.14	-0.11	-0.12	-0.10	-0.12	-0.11	-0.15	-0.17
국채 10년물	0.08	0.04	0.05	0.05	0.06	0.06	0.05	0.09	0.10	0.08	0.00	-0.02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4)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15) 박진혁·손영환(2019. 1. 23), “일본은행: 통화정책 동결 / 물가 전망 하향조정”, 국제금융센터

라. 유로지역¹⁶⁾경제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08.9)와 산업생산 증가율(-1.2%)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실업률은 주요국(5.4%)과 북유럽(5.5%), 남유럽(12.5%)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동유럽(4.6%)은 전분기와 동일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국(2.2%), 동유럽(2.4%), 남유럽(1.3%)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북유럽(2.0%)은 전분기와 동일함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의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50%, 독일 10년물 0.37%, 영국 3년물 0.79%, 영국 10년물 1.43%)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영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스페인의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0.2%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0.0%, 0.7%로 전분기보다 0.2%p, 0.1%p 상승하였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3%, -0.1%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영국은 0.4%p 하락한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0.6%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한 0.9%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p 하락한 0.5%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0.7%를 기록함

16)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7 (2.7)	0.7 (2.7)	0.7 (2.7)	0.7 (2.8)	2.4	0.4 (1.4)	0.4 (1.7)	0.1 (0.6)	0.2 (0.9)	1.8
민간소비	0.4	0.5	0.5	0.2	1.6	0.5	0.2	0.1	0.2	1.3
고정자본투자	-0.7	2.1	-0.1	1.3	2.6	0.0	1.5	0.6	0.6	2.0
수출	1.8	1.0	1.3	2.2	5.2	-0.7	1.1	0.2	0.9	3.0
수입	0.4	1.3	0.1	1.8	3.9	-0.5	1.3	1.1	0.5	2.9
정부지출	0.2	0.4	0.5	0.2	1.1	0.0	0.4	0.1	0.7	1.0

주: 1)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임
 자료: Eurostat(2019.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8.9로 전분기 대비 2.0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0.6%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1.2 하락한 -6.9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1.2%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유로지역 ESI ²⁾	106.8	108.7	111.4	113.7	110.1	113.2	111.8	110.9	108.9	111.2	106.3	106.2
소매판매 증가율 ³⁾ (%)	0.4	0.7	0.5	0.3	2.2	0.2	0.7	-0.1	0.6	1.5	1.3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8.2	-7.0	-5.0	-3.8	-6.0	-4.2	-5.3	-5.7	-6.9	-5.5	-7.9	-7.4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0	0.9	1.6	1.4	2.9	-0.7	0.0	-0.1	-1.2	1.0	1.4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 통계는 전월 대비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년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
 자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임

3) 계절조정 2005년=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임

5) 비계절조정 2005년=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⁷⁾〉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동유럽 지역을 제외한 북유럽, 남유럽 지역에서 소폭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5.4%)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의 실업률(5.5%),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의 실업률(12.5%)은 각각 0.1%p, 0.2%p, 0.2%p 하락함

○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의 실업률(4.6%)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2018년 4/4분기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북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전분기보다 하락함

○ 유럽 주요국과 동유럽, 남유럽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2%p, 0.5%p, 0.4%p 하락한 2.2%, 2.4%, 1.3%를 기록함

○ 북유럽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같은 2.0%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업률	주요국 ¹⁾	6.0	5.9	5.8	5.7	5.8	5.6	5.5	5.5	5.4	5.5
	북유럽 ²⁾	6.5	6.4	6.3	6.1	6.3	5.8	5.7	5.7	5.5	5.6
	동유럽 ³⁾	6.1	5.9	5.7	5.3	5.7	5.0	4.8	4.6	4.6	4.7
	남유럽 ⁴⁾	15.5	14.9	14.4	14.2	14.7	13.8	13.2	12.7	12.5	13.0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1.8	1.8	1.9	1.9	1.9	1.9	2.2	2.4	2.2	2.2
	북유럽	1.6	1.4	1.5	1.2	1.4	1.3	1.6	2.0	2.0	1.7
	동유럽	1.6	1.3	1.6	2.0	1.6	2.1	2.7	2.9	2.4	2.5
	남유럽	1.7	1.7	1.3	1.3	1.5	0.8	1.2	1.7	1.3	1.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Eurostat(2019. 4)

17)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실질 GDP	1.1	0.5	0.6	0.5	2.2	0.4	0.5	-0.2	0.0	1.4
	민간소비	0.6	0.7	0.3	0.2	1.8	0.4	0.2	-0.3	0.2	1.0
	고정자본투자	2.0	1.3	0.4	0.3	2.9	1.0	0.6	0.4	0.9	2.6
	수출	2.3	1.1	1.2	1.7	4.6	-0.2	0.8	-0.9	0.7	2.0
	수입	1.1	1.9	0.5	1.4	4.8	-0.3	1.5	1.3	0.7	3.3
프랑스	실질 GDP	0.8	0.7	0.6	0.7	2.2	0.2	0.2	0.3	0.3	1.5
	민간소비	0.0	0.4	0.4	0.2	1.0	0.3	-0.1	0.4	0.0	0.9
	고정자본투자	2.4	0.8	1.3	0.9	4.5	0.2	0.8	1.0	0.2	2.9
	수출	0.0	2.7	1.1	2.2	4.5	-0.5	0.0	0.2	2.3	3.0
	수입	1.7	-0.3	2.0	0.5	4.0	-0.8	0.6	-0.3	1.4	1.2
이탈리아	실질 GDP	0.5	0.3	0.4	0.4	1.6	0.2	0.1	-0.1	-0.1	0.9
	민간소비	0.8	0.1	0.3	0.1	1.6	0.3	0.0	0.0	0.1	0.6
	고정자본투자	-1.6	1.3	3.1	1.9	4.4	-1.3	2.5	-1.3	0.3	3.4
	수출	3.3	-0.3	1.5	1.9	5.9	-2.0	0.7	1.0	1.3	1.9
	수입	1.9	1.4	0.9	1.7	5.5	-2.0	1.8	0.4	0.7	2.3
스페인	실질 GDP	0.8	0.9	0.6	0.7	3.0	0.6	0.6	0.6	0.7	2.5
	민간소비	0.5	0.8	0.9	0.4	2.5	0.9	0.0	0.8	0.5	2.4
	고정자본투자	2.4	-0.2	2.3	0.6	4.8	1.0	3.0	0.8	-0.2	5.2
	수출	1.3	1.3	0.1	1.4	5.2	0.5	0.3	-0.9	1.9	2.2
	수입	2.4	0.5	1.9	0.6	5.6	1.4	0.7	-0.2	1.1	3.6
영국	실질 GDP	0.4	0.3	0.5	0.4	1.8	0.1	0.4	0.6	0.2	1.4
	민간소비	0.7	0.4	0.5	0.3	2.1	0.4	0.6	0.4	0.4	1.7
	고정자본투자	1.0	1.9	0.3	0.7	3.5	-0.6	-0.9	0.6	-0.5	0.0
	수출	0.2	1.2	1.9	0.1	5.6	0.0	-2.0	0.2	0.9	0.2
	수입	0.9	0.9	0.6	-0.6	3.5	0.3	0.1	0.0	1.3	0.8

주: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2019. 3)

〈국채금리〉

■ 2018년 4/4분기 독일의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한 -0.50%,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한 0.37%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0.79%로 전분기와 동일하고,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7bp 상승한 1.43%임
- 유럽 중앙은행(ECB)은 주요 ECB 금리를 2019년 말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결정하고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¹⁸⁾을 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¹⁹⁾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독일국채 3년물	-0.71	-0.67	-0.57	-0.62	-0.64	-0.41	-0.48	-0.49	-0.50	-0.47	-0.55	-0.52
독일국채 10년물	0.36	0.31	0.45	0.38	0.37	0.62	0.48	0.38	0.37	0.46	0.22	0.12
영국국채 3년물	0.22	0.21	0.34	0.52	0.32	0.77	0.82	0.79	0.79	0.79	0.79	0.76
영국국채 10년물	1.28	1.06	1.18	1.28	1.20	1.45	1.39	1.36	1.43	1.41	1.29	1.19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8)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인 장기대출프로그램은 저리로 민간 대출을 증진시키는 경기 부양책임

19) ECB(2019. 3. 21), *ECB Economic Bulletin Issue 2 2019*

2. 국내경제

- 2018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됨
- 2018년 4/4분기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건설투자는 건설기성과 국내건설수주의 감소세가 둔화되어 감소폭이 둔화됨
 - 산업생산 증가율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모두 상승하여 2.6%를 기록함
 -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과 전기·수도·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8%를 기록함
 -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1억 달러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2018년 4/4분기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 물가비율과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코스피 지수 하락 및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등으로 하락함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및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상승하였으나, 내수출하 지수 및 광공업생산지수 등의 부진으로 하락함

가. 경제성장

■ 2018년 4/4분기 국내총생산은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설비, 건설투자 및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전분기와 동일한 2.0%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2.5%를 나타냄(〈표 25〉 참조)
- 설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4.7%p, 3.0%p 상승한 -2.7%, -5.9%를 기록하였고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1.1%p 하락한 0.5%를 기록함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건축 중심으로 증가함(〈표 26〉 참조)
-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4.1%p 상승한 7.2%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2.5%를 기록함(〈표 30〉 참조)

■ 2018년 연간 국내총생산은 수출 증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설비, 건설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또한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2.7% 증가함

- 수출(4.2%) 증가에도 설비투자(-1.6%), 건설투자(-4.0%) 및 지식생산물투자(1.9%)가 감소세로 전환하여 국내총생산이 감소함
-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1.4%p, 설비투자 -0.1%p, 건설투자 -0.7%p, 순수출이 1.2%p로 나타남²⁰⁾

20) 국회예산정책처(2019. 3. 29), 『2019 경제전망』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9 (1.0)	2.8 (0.6)	3.8 (1.4)	2.8 (-0.2)	3.1	2.8 (1.0)	2.8 (0.6)	2.0 (0.6)	2.0 (0.6)	2.7
민간소비	2.1	2.4	2.6	3.4	2.6	3.5	2.9	2.5	2.5	2.8
설비투자	16.1	17.9	16.4	8.6	14.6	7.3	-3.0	-7.4	-2.7	-1.6
건설투자	11.3	8.5	8.0	3.8	7.6	1.8	-1.5	-8.9	-5.9	-4.0
지식생산물투자	3.2	2.2	2.9	3.5	3.0	3.5	2.2	1.6	0.5	1.9
수출	3.7	0.3	4.4	-0.6	1.9	1.6	4.8	3.1	7.2	4.2
수입	10.1	6.6	7.4	4.1	7.0	4.2	2.0	-1.8	2.5	1.7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8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2.9%로 전분기보다 0.9%p 하락함

○ 2018년 4/4분기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4.7%로 전분기보다 2.4%p 상승함

- 2019년 1월 승용차(-4.5%) 판매 감소를 중심으로 내구재(-2.5%) 판매가 감소함

○ 2018년 4/4분기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 5.2% 증가하였고, 비내구재 판매는 1.1% 증가에 그침

- 2019년 1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화장품 판매를 중심으로²¹⁾ 비내구재 판매(6.6%)가 증가함

■ 2018년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한 4.2%를 기록함

○ 승용차(8.2%), 준내구재(5.9%), 비내구재(2.9%) 판매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구재(5.6%) 판매도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 증가함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2월 ²⁾
민간소비	3.4	2.6	3.5	2.9	2.5	2.5	2.8	-	-
소매판매	2.2	1.9	5.3	5.0	3.8	2.9	4.2	4.1	-2.0
내구재	2.4	5.3	9.4	6.2	2.3	4.7	5.6	-2.5	-2.4
* 승용차	-6.0	0.9	9.1	9.0	2.5	12.0	8.2	-4.5	-5.3
준내구재	0.6	-1.1	4.6	5.7	8.1	5.2	5.9	5.7	2.4
비내구재	2.8	1.8	3.8	4.0	2.9	1.1	2.9	6.6	-3.4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2)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1) 국회예산정책처(2019. 3), 『NABO 경제동향&이슈』

■ 2018년 4/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

- 2018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 상승률(-5.9%)은 운송장비(10.0%)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계류(-11.7%)와 국내기계수주(-0.3%) 또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전분기 증가율보다 7.6%p 상승함
 - 2019년 1월 설비투자지수 상승률은 기계류(-22.0%)의 감소폭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낮아짐
- 2018년 4/4분기에는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²⁾ 증가율(-0.3%)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감소함²³⁾

■ 2018년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국내기계수주(1.8%) 투자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계류(-6.5%), 운송장비(4.0%)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6%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0%p 상승한 -5.9%를 기록함

- 건설기성(불변)²⁴⁾ 증가율은 건축(-8.1%)과 토목(-7.1%)이 소폭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한 -7.8%를 기록함
 - 비주거용건물 건설과 철도 및 전력시설 건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함²⁵⁾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 증가율은 토목부문이 둔화되고 건축부문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9.6%p 상승한 -0.4%를 기록함
 - 2019년 1월과 2월 토목부문(-60.0%, -23.8%)은 발전, 통신, 항만, 공항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함²⁶⁾

■ 2018년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는데, 건설기성(-5.2%)과 국내 건설수주(-3.0%)가 모두 감소함

22)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3) 국회예산정책처(2019. 3), 『NABO 경제동향&이슈』

24)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 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 동향 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3),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6) 통계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설비투자	8.6	14.6	7.3	-3.0	-7.4	-2.7	-1.6	-	-
설비투자지수	2.0	14.1	10.2	-4.8	-13.5	-5.9	-3.7	-17.0	-26.9
기계류	7.4	22.4	11.5	-6.4	-18.2	-11.7	-6.5	-22.0	-29.1
운송장비	-10.8	-4.4	6.5	-0.6	0.3	10.0	4.0	-0.1	-20.3
국내기계수주 ³⁾	4.6	19.7	7.6	1.0	-1.0	-0.3	1.8	-4.6	2.4
건설투자	3.8	7.6	1.8	-1.5	-8.9	-5.9	-4.0	-	-
건설기성(불변)	0.1	10.5	0.8	-3.5	-9.7	-7.8	-5.2	-10.9	-10.6
건축	6.1	18.5	3.7	-0.9	-9.4	-8.1	-4.0	-10.5	-7.9
토목	-13.8	-7.6	-6.9	-11.1	-10.5	-7.1	-8.9	-12.4	-19.2
국내건설수주(경상)	-10.8	-1.7	14.4	-12.4	-10.0	-0.4	-3.0	-26.4	-26.6
건축	-10.4	-4.7	14.9	-10.5	-28.2	-5.0	-8.7	4.0	-27.8
토목	-12.3	9.6	13.3	-18.8	65.7	16.8	15.6	-60.0	-23.8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2) 잠정치임

3) 선박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 2018년 4/4분기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확대로 전분기보다 2.7%p 상승한 2.6%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6.6%) 및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²⁷⁾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18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한 2.7%를 나타냄

- 금융 및 보험업(3.3%)을 제외한 도매 및 소매업(1.9%), 운수업(3.0%), 숙박 및 음식점업(0.6), 부동산 및 임대업(3.3%) 증가세가 확대됨

■ 2018년 연간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 증가에 그침

○ ICT 부문(11.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광공업(1.3%) 전반과 숙박 및 음식점업(-1.9%) 등에서 감소함

27) 통계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전산업 생산 ³⁾	-0.4	2.5	1.1	1.8	-0.1	2.6	1.4	0.8	-1.4
광공업	-2.7	2.4	-1.1	2.0	0.1	4.3	1.3	-0.2	-2.7
제조업	-3.5	2.2	-1.4	1.9	-0.1	4.6	1.2	0.0	-2.5
자동차	-17.8	-2.7	-10.1	-4.2	-6.3	16.6	-1.4	8.1	2.6
ICT	8.8	7.1	6.6	17.4	15.6	6.1	11.3	-1.9	-2.2
서비스업	0.8	1.9	2.5	2.2	0.8	2.7	2.1	2.3	0.0
도매 및 소매업	-0.1	0.7	2.2	1.8	-0.3	1.9	1.5	3.2	-3.8
운수업	2.0	1.6	1.2	3.8	0.5	3.0	2.1	2.9	1.5
숙박 및 음식점업	-2.5	-1.9	-3.0	-2.5	-2.7	0.6	-1.9	1.3	-1.9
금융 및 보험업	6.2	5.1	8.1	7.7	4.0	3.3	5.8	-0.2	1.3
부동산 및 임대업	-4.5	1.2	2.0	-1.4	-2.9	3.3	0.2	-2.8	-2.0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2) 잠정치임

3) 농림어업 제외함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8년 4/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0.3%를 기록하였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2018년 4/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0.3%를 기록함
 - 2019년 1월과 2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함²⁸⁾
- 2018년 4/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60.9%를 기록함
- 2018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3.4%를 기록함
 - 2019년 1월과 2월 실업률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하여²⁹⁾ 전년 동월 대비 4.5%, 4.7% 상승함

■ 2018년 연간 고용률(60.7%)은 0.1%p 낮아졌고 실업률(3.8%)은 0.1%p 높아짐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3), “‘19년 2월 고용동향”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2), “‘19년 1월 고용동향”

○ 고용률은 20대에서 상승하였으나 30대 이상에서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0대와 30대에서 모두 하락하였으나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승함³⁰⁾

■ 2018년 4/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율의 경우, 농림어업(6.1%)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0.5%) 부문은 증가하고 광공업(-2.1%) 부문은 전분기와 동일함

○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한 6.1%를 기록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0.5%를 기록함
- 2월 정부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보건·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³¹⁾

○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2.1%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2018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이 감소하였고 자동차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제조업 또한 감소세가 지속됨³²⁾

○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과당경쟁, 업황 부진, 무인화 및 온라인화 등의 확산으로 감소함

30) 통계청 보도자료(2019. 1),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31) 국회예산정책처(2019. 3), 『2019 경제전망』

3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 “'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¹⁾	1.0	1.2	0.7	0.4	0.1	0.3	0.4	0.1	1.0
청년취업자 ¹⁾	-1.1	0.0	0.7	-1.7	-0.7	1.5	-0.1	0.1	0.5
고용률 ²⁾	61.0	60.8	59.6	61.2	61.1	60.9	60.7	59.2	59.4
실업률 ³⁾	3.2	3.7	4.3	3.9	3.8	3.4	3.8	4.5	4.7
청년 ⁴⁾ 실업률 ³⁾	9.0	9.8	10.0	10.1	9.4	8.3	9.5	8.9	9.5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2	0.5	5.3	3.7	4.4	6.1	4.8	10.9	11.7
광공업	0.9	-0.3	1.0	-2.0	-2.1	-2.1	-1.3	-3.8	-3.5
제조업	0.9	-0.4	1.0	-2.0	-2.0	-1.9	-1.2	-3.7	-3.3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0.9	1.6	0.4	0.7	0.3	0.5	0.5	0.4	1.5
건설업	4.7	6.4	3.6	0.8	2.3	2.7	2.3	-1.0	-0.2
도·소매, 음식, 숙박	-0.2	0.6	-1.6	-1.2	-2.6	-2.3	-1.9	-1.8	-1.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5	2.1	0.6	1.0	0.4	0.7	0.7	2.5	1.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9	-1.1	1.8	3.3	4.1	3.9	3.3	1.4	3.5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2)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8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 2018년 4/4분기 상품물가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나 농축수산물과 전기·수도·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함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률(7.1%)은 쌀 가격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2.2%p 상승함³³⁾
-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률(1.1%)은 11월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함
- 전기·수도·가스 상승률(0.3%)은 2017년 11월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2018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 인하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7.3%p 상승함
- 1월 상품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함
- 2월 상품물가는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함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 “'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 2018년 4/4분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함

■ 2018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1.5%) 폭염과 2018년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인하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제한됨³⁴⁾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함

- 농축산물은 폭염 및 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 상승함
-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됨

■ 2018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97.3)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해결 지연과 금리인상 불확실성, 주식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됨³⁵⁾

○ 2월 소비자심리지수(99.5)는 주가지수 상승, 생활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0p 상승함³⁶⁾

■ 2018년 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해결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1.8p 하락한 103.2를 기록함

3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 “‘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35) 국회예산정책처(2019. 1), 『NABO 경제동향&이슈』

36) 국회예산정책처(2019. 3), 『NABO 경제동향&이슈』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10.5	105.0	108.7	106.8	99.9	97.3	103.2	97.5	99.5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1.4	1.9	1.1	1.5	1.6	1.8	1.5	0.8	0.5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0	1.9	0.5	1.2	1.6	2.1	1.3	0.1	-0.7
농축수산물	1.3	5.5	0.7	2.0	4.9	7.1	3.7	2.5	-1.4
공업제품	1.4	1.4	0.7	1.5	1.8	1.1	1.3	-0.7	-0.8
전기·수도·가스	-3.3	-1.4	-1.9	-3.0	-7.0	0.3	-2.9	1.4	1.3
서비스	1.8	2.0	1.5	1.7	1.5	1.6	1.6	1.4	1.4
집세	1.3	1.6	1.0	0.7	0.5	0.3	0.6	0.2	0.1
공공서비스	0.7	1.0	0.5	0.3	0.0	0.1	0.2	-0.3	-0.3
개인서비스	2.4	2.5	2.2	2.7	2.5	2.6	2.5	2.5	2.5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8년 4/4분기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7.7%(1,546억 달러)를 기록함

○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9년 1월 수출은 중국 내수부진,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지속, 반도체와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6.2% 감소함³⁷⁾- 2019년 2월 수출(-11.4%)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지속 및 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함³⁸⁾

■ 2018년 4/4분기 수입 증가율은 12.9%(1,3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8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축소됨

○ 소비재 수입 증가율(14.7%)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원자재 수입 증가세도 지속됨

37) 국회예산정책처(2019. 2), 『NABO 경제동향&이슈』

38) 국회예산정책처(2019. 3), 『NABO 경제동향&이슈』

- 2019년 1월 수입 증가율은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9.0%)하면
서³⁹⁾ 1.7% 감소함
- 2019년 2월 수입 증가율은 의류, 승용차, 완구 등 소비재와 원유, 석유제품 등 원자재,
제조용 장비와 기계류 등 자본재의 수입이 감소하여⁴⁰⁾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함

■ 2018년 연간 수출은 5.4%(6,049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11.9%(5,352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7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4	5.9	5.0	7.4	-8.7	2.3	1.4	4.3	1.8
	원료 및 연료	26.3	30.7	12.3	45.8	30.9	33.9	30.4	-3.0	-11.5
	경공업 제품	-6.8	1.5	2.7	5.3	-16.5	10.5	-0.4	3.2	1.2
	중화학 공업품	8.4	16.0	10.2	-0.4	0.8	6.0	3.9	-7.4	-12.5
	전체	8.4	15.8	9.8	3.1	1.7	7.7	5.4	-6.2	-11.4
	금액	1,435.4	5,736.9	1,450.5	1,516.2	1,536.4	1,545.5	6,048.6	461.5	394.4
수입	소비재	7.1	9.2	16.1	14.6	-0.4	14.7	10.9	8.6	-9.4
	원자재	14.6	22.0	13.7	21.2	21.9	22.1	6.6	0.1	-8.5
	자본재	9.6	16.2	12.8	1.6	-6.5	-0.4	1.6	-9.0	-20.4
	전체	11.6	17.8	13.7	13.0	7.8	12.9	11.9	-1.7	-12.6
	금액	1,234.0	4,784.8	1,324.3	1,331.5	1,303.1	1,393.1	5,352.0	450.3	364.7
무역수지		201.4	952.2	126.3	184.6	233.3	228.2	772.4	11.2	29.6

주: 1)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8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은 중국과 중동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증가함

- 미국에 대한 수출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일반기계, 인공지능(AI)과 5G 등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수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EU에 대한 수출은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영향에 따라 기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함

39) 관세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수출입 현황”

40) 관세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수출입 현황”

- 중동 지역은 경기 불황 및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완성차 판매 감소, 신규 프로젝트 발주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반기계 수출 부진, 석유화학제품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함⁴¹⁾
 - 2019년 1월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6.2% 감소함⁴²⁾
 - 2019년 2월 수출 또한 반도체 단가 하락 지속과 수요부진으로 11.4% 감소함⁴³⁾

■ 2018년 4/4분기 지역별 수입은 국내 생산 및 수출 활성화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⁴⁴⁾ 증가세를 지속함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중국	26.0	14.2	14.8	27.5	17.8	-0.5	14.1	-0.5	-17.3
	ASEAN	17.2	27.8	12.9	-0.3	-1.7	10.7	5.1	3.7	-3.2
	미국	13.1	3.2	-3.2	5.6	-1.0	23.5	6.0	20.5	16.1
	EU	10.4	15.9	14.9	-7.4	-3.7	27.6	6.7	12.2	-11.4
	중동	3.0	-7.0	-11.3	-6.4	-5.5	-22.2	-11.3	-27.2	-27.1
	중남미	4.4	10.5	5.6	-3.4	-10.1	5.0	-1.2	-11.1	-33.9
	일본	5.1	10.1	16.2	14.1	9.4	15.9	13.8	1.0	-6.8
	전체	100.0	15.8	9.8	3.1	1.7	7.7	5.4	-6.2	-11.4
수입	중국	21.0	12.5	7.6	9.7	3.9	13.7	8.8	13.7	-21.7
	동남아	14.5	18.3	10.8	7.8	1.3	5.5	6.2	-4.4	-10.6
	중동	15.5	29.6	15.5	32.1	24.2	20.0	22.7	-16.2	-13.0
	EU	11.1	10.4	22.5	12.5	-1.8	3.3	8.8	-15.3	-25.1
	일본	9.7	16.1	6.3	0.7	-6.6	-3.8	-0.9	-9.8	-15.8
	미국	11.3	17.4	20.9	3.4	10.9	31.1	16.0	7.0	-3.8
	호주	4.0	26.3	4.5	-3.7	8.7	24.0	8.1	25.8	-27.3
	전체	100.0	17.8	13.7	13.0	7.8	12.9	11.9	-1.7	-12.6

주: 1) 2018년 3/4분기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임

2) 증감률은 전년 동기(월) 대비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4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1), “2018년 수출입 동향”

4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

4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수출입 동향”

4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1), “2018년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8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60만 6천 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0%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고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증감률 또한 전분기보다 1.2%p 하락한 1.8%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중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311만 5천 원을 기록함

○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91만 1천 원, 재산소득은 4.9% 증가한 1만 9천 원, 이전소득은 11.9% 증가한 52만 3천 원을 기록함

〈표 32〉 가계소득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7	2018			
		4/4	1/4	2/4	3/4	4/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44.5	476.3	453.1	474.8	460.6
	증가율	3.1	3.7	4.2	4.6	3.6
	실질 증감률 ²⁾	1.6	2.6	2.7	3.0	1.8
근로소득	금액	293.2	320.5	303.1	320.6	311.5
	증가율	0.9	6.1	5.3	4.5	6.2
사업소득	금액	94.3	90.5	92.5	92.6	91.1
	증가율	8.5	5.7	3.8	1.1	-3.4
재산소득	금액	1.8	2.2	2.3	2.1	1.9
	증가율	9.5	3.4	34.4	9.3	4.9
이전소득	금액	46.8	59.0	51.3	55.3	52.3
	증가율	10.1	19.2	16.6	22.8	11.9

주: 1) 전년 동(분)기 대비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부문은 연간 '가계지출조사'로, 소득부문은 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각각 작성하여 공표 주기가 개편됨. 이에 따라 제간보합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 동향

■ 경기 선행지수⁴⁵⁾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⁴⁶⁾ 순환변동치는 2017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 2018년 4/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수출입 물가비율 및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코스피지수 하락,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전분기보다 0.8 하락한 99.1을 기록함⁴⁷⁾

- 2019년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 물가비율은 상승하였으나, 구인구직비율 하락,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한 98.6을 기록함⁴⁸⁾

- 2019년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3 하락한 98.3을 기록함⁴⁹⁾

○ 2018년 4/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수입액 및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및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0.5 하락한 99.4를 기록함

- 2019년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1 하락한 99.1을 기록함⁵⁰⁾

- 2019년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하락 등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한 98.7을 기록함⁵¹⁾

45)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46)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47) 통계청 보도자료(2019. 1),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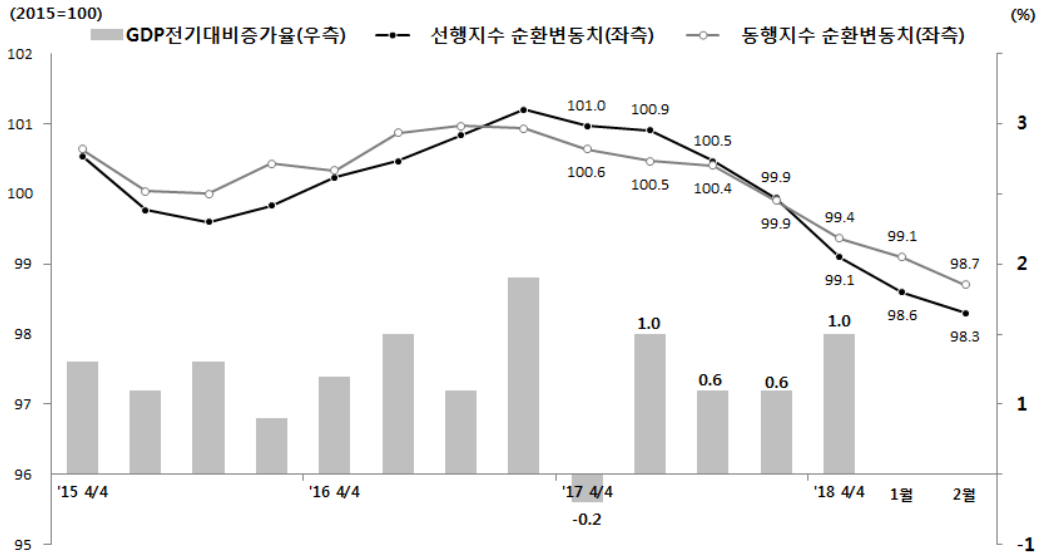
48) 통계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49)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50) 통계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51)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8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8년 4/4분기 재고율⁵²⁾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 재고지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5.2%p 상승한 110.6%를 기록함

○ 2019년 1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3.1%p 하락한 111.5%임

- 1월 제조업 출하지수의 경우 반도체,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차금속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5% 상승했고, 재고지수는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전자부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1.2% 하락함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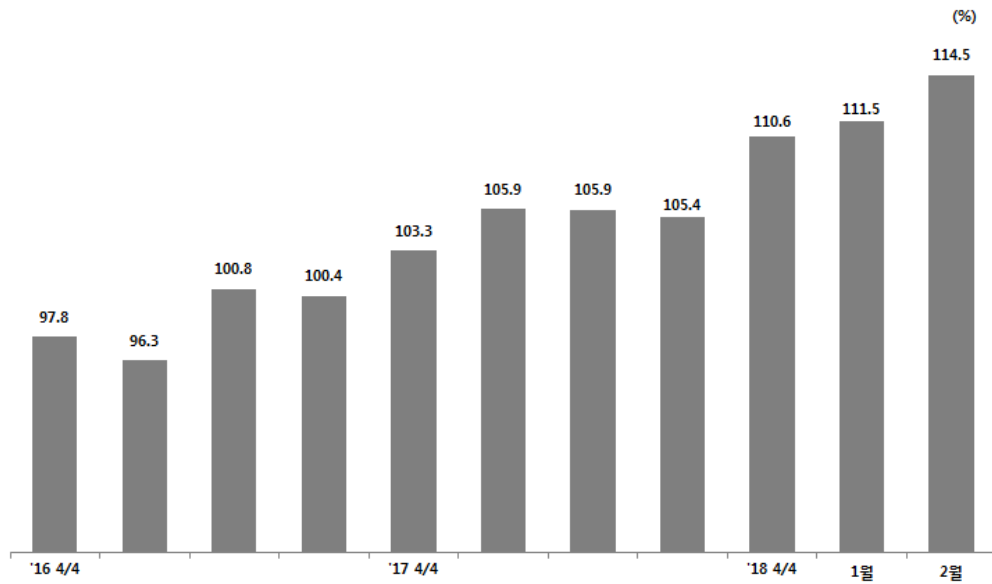
○ 2019년 2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3.0%p 상승한 114.5%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반도체,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의 증가에도 자동차, 석유정제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2.1% 하락하였으며, 재고는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0.5% 상승함⁵⁴⁾

52)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 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3) 통계청 보도자료(2019. 2),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54)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text{계절조정재고지수} \div \text{계절조정출하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